

洪貴達 交遊詩에 나타난 15世紀 後半 官人의 形象

金 昌 祐*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1. 治世의 根幹으로서의 循吏 |
| II. 生涯와 交遊詩 創作의 背景 | 2. 修養의 主體, 教化의 담당자 |
| III. 交遊詩에 나타난 15世紀 後半 官人의 形象 | 3. 太平烟月 속의 餘裕와 自適의 閑人 |
|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조선 世祖~燕山君 시기에 활동했던 洪貴達(1438~1504)의 교유 시에 나타난 官人의 形象을 규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이 작업은 홍귀달 시의 含意의 일면을 밝히는 작업이지만, 이를 통해 15世紀 後半 시인들의 時代 認識과 志向의 일면을 살피는 작업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홍귀달은 世祖朝에 嶺南에서 진출한 士人으로, 함께 영남에 기반을 둔 金宗直 및 新進士類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그는 김종직과 달리 출사 이후 순조롭게 입지를 확보해나갔으며, 徐居正이 맡고 있던 文衡을 이어받기도 했다. 신진사류와도 교유했지만 보다 이른 시기에 진출하여 京華社會에 적응과정을 거쳤던 선배 세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勳舊 對 士林으로 인식되어온 기존의 構圖에서 그는 개성적인 연구 대상으로 보이기 어려웠던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특성은 오히려 다른 면을 주목하게 한다. 1504년 죽음 이전까지 그는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하며 폭넓은 교유를 나누었고, 文衡을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연구교수 / nihult@hanmail.net

말을 정도로 당시 문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점에서 교유를 바탕으로 한 교유시는 그의 시대 인식 및 지향만이 아니라, 당대 문사들의 그것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제재가 바로 교유시에 나타난 官人의 形象이다.

홍귀달의 교유시에 나타난 15世紀 後半 관인의 형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治世의 根幹으로서의 循吏型 官人이다. 그는 당대가 태평성세라는 인식 아래, 태평성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백성의 삶의 문제에 절실하고 任地의 難題를 적절히 헤쳐 나가는 循吏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대에 필요한 관인형의 하나로 循吏型 관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修養의 主體, 教化의 담당자로서의 官人 形象이다. 이 무렵에는 新進士類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조정에 새로운 긴장감이 형성되었고, 『小學』, 『家禮』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律身, 自己 檢束 등의 실천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는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성장하며 수학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수양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教化에 책임을 다하는 地方官의 像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관을 수양의 주체이자 教化의 담당자로 강조하는 내용이 김종직 관련 작품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듯하다. 말하자면 김종직 및 신진사류와 비교할 때, 홍귀달의 교유시에는 이 같은 면모가 그리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속성의 관인형은 당시 신진사류의 진출과 함께 변화를 겪어가던 관인사회에서 공감의 폭을 넓혀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太平烟月 속에 餘裕와 自適을 즐기는 閑人의 형상이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성종 연간은 대체로 안정과 평온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교유를 바탕으로 많은 작품에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관인의 形象은 여유롭고 自適한 생활을 즐기는 閑人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神仙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관인의 형상은 각각 당대 문사들이 느끼는 정치 현실에서의 필요, 새롭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官人像에 대한 고민, 시대를 謳歌하는 餘裕와 自適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官人의 形象, 太平聖世, 循吏, 修養, 教化, 餘裕, 自適, 閑人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조선 世祖~燕山君 시기에 활동했던 洪貴達(1438~1504)의 교유시에 나타난 官人의 形象을 규명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둔다. 이 작업은 홍귀달 시의 含意의 일면을 밝히는 작업이지만, 이를 통해 15世紀 後半 시인들의 時代 認識과 志向의 일면을 살피는 작업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홍귀달은 15세기 후반에 주로 활동한 문인 가운데 가장 많은 詩文을 남긴 사람의 하나다. 그런데 그간 그의 시문은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한 것¹⁾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는 世祖朝에 嶺南에서 진출한 사인으로, 함께 영남에 기반을 둔 金宗直(1431~1492) 및 新進士類와 한데 묶어 말하기에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그는 김종직과 비슷한 시기에 출사했다. 그러나 김종직과 달리 조정에서 순조롭게 입지를 확보해나갔으며, 이후 徐居正(1420~1488)이 맡고 있던 文衡을 이어받아 10여 년 동안 文風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그는 成宗 朝에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던 신진사류와도 교류를 했다. 그러나 그들보다 이른 시기에 진출하여 京華社會에 적응과정을 거쳤던 선배 세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 따라서 勳舊 對 士林으로 인식되어온 기존의 構圖에서 그

1) 선행연구로 두 편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권현준은 「허백정 홍귀달의 기문 연구」, 경북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에서 홍귀달의 산문 가운데, 기문에 대해 고찰한 바 있으며, 강지희, 「洪貴達 詩에 나타난 儒仙의 삶과 虛白에의 지향」, 『漢文學報』11집, 우리한문학회, 2004.는 시를 대상으로 유선적 삶을 고찰하고 그 중요한 국면으로 ‘虛白’을 지적하고 있다. 홍귀달의 삶과 문학을 전면적으로 다루거나 교유시와 관련하여 접근한 연구는 아직 없다.

2) 정경주는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법인문화사, 1993, p.13.에서 신진사류와 홍귀달에 관계에 대해 연령이나 교류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거리가

는 개성적인 연구 대상으로 보이기 어려웠던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특성은 오히려 다른 면을 주목하게 한다. 1504년 죽음 이전까지 그는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하며 폭넓은 교유를 나누었고, 文衡을 맡을 정도로 당시 문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말년에 연산조의 조정에서 보여준 氣節과 거침없는 言辭는 그의 삶과 문학에 있어 가장 精彩로운 부분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생애의 오랜 기간 동안 폭넓은 교유의 바탕 위에서 쓴 교유시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교유시에 나타난 官人의 形象은 그의 시대 인식과 지향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당대 교유의 중심에 있었던 그를 통해 다른 시대와 차별화되는 이 시대만의 특성에 다가서게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접근은 그간 훈구 대 사림의 구도가 쌍방의 관계에 대한 규정, 또는 어느 일방에 대한 강조에 치우치다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하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고는 교유시 가운데 특히 전송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홍귀달의 전송시에는 특히 당시 文士들이 공감하고 지향하던 관인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명의 실마리를 보여줄 만한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II. 生涯³⁾와 交遊詩 創作의 背景

홍귀달은 1438년(세종 20년) 경상도 咸昌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贈 判書 孝孫, 모친은 副司直 緝의 딸인 安康 盧氏였으며, 20세에 司正 淑貞의 딸인 商山 金氏와 결혼했다. 그는 10세에 龍宮의 교수로 있던 朱伯孫에게 『論語』를 배웠고 22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뒤, 24세이던 1461년(세조 7) 別試 親策科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선다. 1462년(세조 8) 승문원 박사를 지냈고 세조 11년에는 侍講院 說書가 되어 사가독서를 하기도 했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3) 생애에 대해서는 문집의 뒷부분에 부록으로 있는 「年譜」의 내용을 참고했음.

다. 李施愛의 亂이 일어나던 1467년(세조 13년)에는 함경도 절도사 許琮(1434~1494)의 천거로 兵馬評事가 되었고, 軍功으로 공조정랑이 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예문관 교리, 사헌부 장령, 예문관 典翰 등을 지냈고 『世祖實錄』 纂輯에 참여했으며, 1472년(성종3)에는 全羅道按察使, 倭人護送使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리고 1476년(성종7)에는 원접사 徐居正의 從事官이 되어 明 사신 祁順 등을 맞이했으며, 1479년(성종10) 도승지로서 燕山君의 生母 尹氏의 廢妃에 반대하다가 투옥되기도 했으나 1481년(성종12) 천추사가 되어 使行 길에 오르기도 했다. 1484년(성종15) 이조참판으로 재직 중 강원도 관찰사로 나갔고, 다시 부친 봉양을 위해 慶州府尹을 자청했는데, 1489년(성종20)에 부친상을 당한다. 喪을 마치고 경성에 돌아온 그는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고 이어 좌참찬, 이조판서를 맡게 된다. 호조판서로 있던 1494년(성종25), 成宗이 승하하자 三都監提調가 되어 國喪을 管護한다.

이듬해인 1495년 연산군이 즉위하고 얼마 안 있어 홍문관 대제학을 맡는다. 이어 『成宗實錄』 纂輯에 참여하였으며, 왕명에 의해 成倪·權健과 『歷代明鑑』을 편찬하기도 한다. 그는 변화된 政局을 지켜보며 「請從諫疏」를 올리는데, 한차례 史禍로 좌천되었다가 문형에 복직하면서 다시 「請勿拒諫疏」·「請罷打圍疏」·「議政府陳弊疏」와 「政府疏」 등의 상소를 올린다. 1503년에는 아들 彦國의 딸을 궁중에 들이라는 왕명을 거역하여 杖刑을 받고 慶源에 유배된다. 이후 한양의 감옥으로 옮기라는 명에 의해 이송되던 중, 端川에서 죽음을 당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 그는 내직과 외직을 역임했고 使行 및 접빈의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으며 『실록』 및 각종 전적 간행에 참여하는 등 당대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연산조의 조정에서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세조~연산군 초의 시기에 다양한 활동을 하며 당대의 명사들과 두루 교류하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교류시는 이러한 교류의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유시 창작의 배경을 살펴보면, 동시대 또는 다른 시대 인물들의 문집에 드러나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조정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선후배 관리와 주고받는 시들을 들 수 있다. 公務 또는 餘暇에 이들에게 所懷를 적은 시를 보내거나 초청의 의사를 밝히는 것, 또는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 등 다양하다. 그리고 전라도안핵사, 왜인 호송사 등 공무로 단기간에 오가며 만난 이들과 주고받은 시들도 적지 않다.

특히 양적으로 압도적인 것은 地方官 또는 邊塞의 무장으로 떠나는 이에게 주는 전송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이에게 주는 것, 京城으로 돌아가는 이에게 주는 것, 공무 수행 차 지방에 가는 이에게 주는 것, 공무 수행 중에 만난 이와 헤어짐의 상황에서 주는 것, 은퇴하여 고향에 내려가는 이에게 주는 것, 중국 사행을 가는 이에게 주는 것, 북변의 장수로 가거나 또는 장수의 幕下에 가는 이에게 주는 것 등 다양하다.

Ⅲ. 交遊詩에 나타난 15世紀 後半 官人의 形象

1. 治世의 根幹으로서의 循吏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이들에게 주는 작품은 내용상 시대 분위기를 저변에 두면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특정 詩語나 典故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今日湖西舊召南	오늘의 湖西는 옛날의 召南인데
棠陰君復繫征驂	감당나무 그늘에 그대 다시 말을 매리
山河表裏渾耕鑿	곳곳의 산하마다 백성들 편한 삶을 사니
知有周家美化覃	周家の 아름다운 교화 널리 퍼짐을 알 수 있으리 ⁴⁾

이 작품은 漢陽에 머무르다 근무지인 충청도 관찰사 막부로 돌아가는 梁賀를 전송한 시다. 내용을 볼 때 시인은 대상을 미화하는 한편 입지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구성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周家の 아름다운 교화가 널리 퍼진[周家美化]’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시대를 태평성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고는 ‘耕鑿’,⁵⁾ ‘五月薰風(南風)’⁶⁾ 등 다른 작품의 시어들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태평성세라는 인식은 목민관의 임무를 자연스레 德化, 敎化의 면과 연결시키곤 한다.

客舍西連民樂亭	객사는 서쪽으로 民樂亭에 이어지고
萬家煙火布如星	밥 짓는 연기나는 집들, 별처럼 퍼져 있으리
應知太守與民樂	응당 알겠네 태수가 백성과 함께 즐기며
盡日弦歌醉不醒	종일토록 絃歌 소리 즐기며 취한 채 깨지 않을 것임을 ⁷⁾

앞의 작품에서 시인은 周나라의 아름다운 교화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덕화와 관련하여 ‘棠陰’이라는 典故를 사용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雨露’ 등 몇 가지⁸⁾가 사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4구에 쓰인 ‘弦歌’이다. 이 작품에서 ‘弦歌’는 古阜로 부임하는 柳濱이 백성들을 예약으로 교화할 것임을 떠올리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다. ‘현가’는 『허백정집』에서 두 가

4) 洪貴達, 『虛白亭集』(『韓國文集叢刊』 14), 속집 권1, p.128. 「都事 梁賀가 충청도 관찰사 막부로 돌아감을 전송하다. 送梁都事賀, 還忠淸觀察幕府」
 5) 洪貴達, 『虛白亭集』, 권1, p.31. 「送咸昌城主曹侯偶還邑」 五首의 “閨境草木霑雨露, 滿地耕鑿環人烟”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6)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2, p.165. 「端午」의 “一年重五艷陽天, 風送南薰入舜絃.”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7)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45. 「고부로 부임하는 柳侯 子淸을 전송하다. 送柳侯子淸濱赴任古阜」
 8) ‘雨露’가 쓰인 예로 洪貴達, 『虛白亭集』, 권1, p.22. 「送李公景元赴任安東」의 “賴有二天饒雨露, 願分膏澤問幽憂.” 등이 있다. 이 밖에 ‘採詩’ 등을 들 수 있는데 洪貴達, 『虛白亭集』, 권1, p.28. 「送江原都事丁不崩壽岡朝京且歸」의 “關東昔日採民風, 天下奇觀在嶺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 배경을 가지고 쓰인다. 하나는 孔子가 武城의 원으로 있던 제자 子游를 찾아갔을 때 백성들이 거문고를 타고 시를 불렀다는 『論語』의 내용에 바탕한 것⁹⁾ 하나는 공자 제자 宓子賤이 單父의 원이 되어 거문고만 타고 堂에 내려오지 않아도 고을이 잘 다스려졌다는 것¹⁰⁾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 전송시에서 그려지는 임지는 ‘산하마다 백성들이 편한 삶을 살거나’, ‘밥 짓는 연기 나는 집들이 별처럼 퍼져있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이며, 지방관은 그러한 세상을 지속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앞의 몇 가지 시어나 전고는 홍귀달의 시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며, 또 부임을 앞둔 상대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점에서 관습적인 내용으로 볼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작품을 보면 그것이 덕화를 바라는 시인의 眞情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有女有女有知覺	딸 있네 딸 있네 마음에 걸리거니
兄及弟矣命皆薄	언니와 동생, 팔자가 모두 박하다네
長女哭夫未三十	큰 아이 서른도 안 되어 서방을 보내고
次女十八舟汎柏	둘째 딸 열여덟에 혼자 되었네
含酸各在舅姑傍	쓰라린 맘 달래며 시부모 곁에 살면서
悽悽日夜吞聲哭	밤낮으로 슬픈 마음으로 울음소리 삼키네
父母白頭隨黃塵	부모는 흰머리로 塵世에 와있느라
歲月相望隔南北	긴 세월 남북에서 서로 바라만 보네
嗚呼此恨何時平	아아 이 한은 언제나 그칠까
會當一日蓋棺槨	언젠가 棺 뚜껑 덮는 그날이겠지 ¹¹⁾

9)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40. 「次平澤東軒韻」의 “(前略) 家家鼓腹弦歌裏, 不見年年澤雁鳴.” 등을 들 수 있다.

10)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42. 「送槐山郡守金侯義童赴任」의 “(前略) 單父弦歌裏, 潞州醉睡間.” 등을 들 수 있다.

11) 洪貴達, 『虛白亭集』, 권1, p.31. 「함창의 성주 曹侯 侗이 읍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며. 送咸昌城主曹侯侗還邑」 五首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귀달은 경상도 咸昌에서 성장하여 世祖 朝에 출사했다. 그의 시에는 故鄕의 山川,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이 자주 나타난다. 이는 조부, 부친 이후로 처음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한 그의 입장에서, 함창 지역에 있는 가족과 친척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 곳에는 병들고 가난한 여동생이 자식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으며,¹²⁾ 어린 조카는 일찍 어머니를 잃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다.¹³⁾ 본 작품의 내용처럼 두 딸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벼슬하느라 한양에 머무르는 아버지와 얼굴 보기도 힘든 처지였던 것 같다. “아아 이 한은 언제나 그칠까, 언젠가 棺 뚜껑 덮는 그날이겠지”라는 마지막의 말처럼, 그의 마음은 항상 고향을 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에 부임하는 관리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백성에게 진심으로 다가서서 고충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을 安樂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개제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사고는 民生의 해결이 곧 治世의 기본이라는 인식의 형태로 이어진다.

槐山號名郡	괴산은 명군으로 이름난 곳이라
太守出淸班	태수가 淸班에서 나가네
地古風煙老	땅 오래되고 풍경도 오래된 곳
秋高草木斑	한가을이라 풀과 나무는 아롱진 빛
土有田疇沃	곳곳마다 기름진 田地가 있어
民無稼穡艱	백성들 농사에 어려움 없네
閭閻寬賦役	마을에는 부역이 관대하고

-
- 12) 洪貴達, 『虛白亭集』, 권1, p.31, 「送咸昌城主曹侯倜還邑」 二首. “有妹有妹年六十, 一身長年百憂集. 疾病貧窮婢僕單, 又無子女扶行立. 只有一兄宦遊遠, 半世甲影淚垂泣. 我有幽懷寄與誰, 鴻雁飛飛向南急.”
- 13) 洪貴達, 『虛白亭集』, 권1, p.31, 「送咸昌城主曹侯倜還邑」 三首, “有甥有甥曰辛彭, 一生計活嗟零丁. 早年失母何所恃, 病父雖存飄如萍. 淒涼歲暮衣裳單, 逢着凶年羸瘠形. 送我渭陽遠別離, 無人提壺慰飄零. 客自南來說無聊, 痛骨傷心那忍聽.”

官府足清閒	관부에는 한가함이 가득하지
單父弦歌裏	선보의 거문고 소리 울리는 듯
滁州醉睡間	滁州에서 취해 조는 모습인 듯
四山輸爽塏	사방 산에선 상쾌한 기운 전해오고
兩水送潺湲	두 줄기의 물은 졸졸 흘러오며
隻鶴尋常伴	외로운 학 언제나 짝을 찾고
雙鳧月朔還	두 마리 오리는 초하룻날에 돌아오리
六年優政報	육년의 넉넉한 정치 알려지면
一日寵章頒	어느 날 성상의 조서 내리리니
會見鏘環佩	때마침 보겠지 패옥소리 짤랑이며
欣承肅穆顏	기쁜 표정으로 엄숙한 얼굴 뵈옵을 ¹⁴⁾

지방관을 전송하는 이 작품 역시 내용면에서는 다른 전송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괴산에 부임하는 金義童이 태평한 세상에서 덕화의 정치를 펼 것이며, 수령인 자신은 선보가 거문고를 울리고 歐陽脩가 醉翁亭에서 취해 즐았던 것¹⁵⁾과 같은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詩想이 수렴되는 마지막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괴산에서의 넉넉한 정치가 조정에 알려지고, 그 결과 聖上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관으로서의 善政이 바로 盛世의 기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관으로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任地의 難題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는 “한 마디 말에 쌓인 冤獄이 다 해결되고, 위엄과 明察에 간악한 이들이 숨을 죽이는 것”¹⁶⁾과 같은 엄정한 법집행과 현장 감각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리의 유형은 작품 곳곳에 ‘循吏’라는 人物型으로 나타난다.

-
- 14)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42. 「괴산군수로 부임하는 김후 의동을 전송하며 送槐山郡守金侯義童赴任」
- 15) 宋 歐陽脩가 滁州 州知事로 있을 때 醉翁亭에서 宴飲을 하던 것을 가리킴. 「醉翁亭記」의 내용에 자세함.
- 16)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3, p.173. 「送朴判官之尙州」 “片言出口滯冤空, 群姦脅息威明中.”

枳棘不棲鸞鳳毛	난새와 봉새 가시나무에 살지 않나니
割雞何必用牛刀	닭을 잡는데 어찌 꼭 소 잡는 칼을 쓰라
慈親入夢思鄉遠	慈親이 꿈에 보일 때 먼 고향을 생각하더니
聖主憂民擇守高	성주께서 백성 걱정에 훌륭한 태수를 고르셨네
奉檄入門堪快活	격문을 받들고 門에 드니 쾌활할 만하고
鳴琴坐席肯焦勞	거문고 울리며 자리에 앉으니 어찌 마음 애태우리
漢廷公輔皆循吏	漢나라 조정의 公輔는 모두 循吏였거니
佇見朝家稷契臯	우두커니 서서 조정의 후직과 설, 고요 같은 이를 바라보네 ¹⁷⁾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시인은 漢나라 조정의 公輔가 모두 순리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순리로서 이상적인 인물이라 할 后稷·契·臯·陶 같은 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순리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유사한 표현을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潁川과 渤海에서의 治績이 없었다면, 龔·遂와 黃·霸의 명성과 업적이 과연 어떠했을지 알 수 없다”¹⁸⁾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거나, “그대 보게나, 漢의 卿相들 일찍이 백성들 다스리던 지방관이었다네”¹⁹⁾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그의 교유시에는 역사상 존재했던 순리, 특히 漢代의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前漢, 後漢의 인물로 南陽太守로 재직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부모로 여겼다는 召信臣과 杜詩,²⁰⁾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 높았던 後漢 順帝 때의 冀州刺史 蘇章, 後漢 때 中牟令이 되어 德政을 베풀자 고을에 세 가지 기이한 일이 나타났다는 魯恭,²¹⁾ 부임할 때

17)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29. 「金溝의 宰로 나가는 李侯 元成을 전 송하며 送李侯元成宰金溝」
 18)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2, p.61. 「送宋牧使遙年赴尙州詩序」 “使當時無潁川·渤海之治, 龔黃之聲名事業, 不知果何如也.”
 19)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2, p.157. 「送崔判官潤身赴任尙州」 “君看漢卿相, 曾是職親民.”
 20)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45. 「送金府尹待價瑄赴任全州」 “龔黃伯仲耳, 召杜作父母.”

타고 갔던 암소가 새끼를 낳자 자기의 것이 아니라면 놓고 왔다는 後漢 때 時苗²²⁾ 등이 대표적인 이들이다.

홍귀달은 당대가 태평성세라는 인식 아래, 태평성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백성의 삶의 문제에 절실하고 任地의 難題를 적절히 헤쳐 나가는 순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循吏型的 官人像을 제시하고 있다.

2. 修養의 主體, 教化의 담당자

시인이 주로 활동했던 成宗 年間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新進士類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훈구관료에 의해 주도되던 정국을 비판하는 등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小學』, 『家禮』의 보급과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문상의 律身, 自己 檢束 등 실천적 측면이 강조되기도 했다. 교유시를 보면 당시 관리들 사이에 이러한 덕목이 점차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送君宰長水	장수 땅 현감으로 가는 그대를 전송하노니
旁縣多好山	고을 부근에는 좋은 산도 많다네
田里要安撫	백성들 자상하게 보살피야 하나니
庭闈任往還	부모님 뵈러 오고 가는 길도 좋으리
仁應蘇久枯	仁은 말라붙은 것도 소생하게 하고
孝以化群頑	孝는 완악한 무리도 감화시키네
聽訟歸無訟	訟事 들어 송사 없는 데 이르게 하고
思艱則去艱	어려운 일 있거든 어려운 일 없애야 하니
簿書稀案上	책상 위엔 문서가 드물고
弦誦闈民間	마을엔 거문고 타고 글 읽는 소리 가득하리

21)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29. 「送李侯順命赴任咸安」 “冀天欣有二, 牟政異傳三.”

22)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2, p.154. 「送許府尹誠赴任慶州」 “憶曾留犢處, 送別意重重.”

琴閣詩初占 琴閣에서 시 처음 지을 때
 風軒月正彎 풍헌 위엔 굽은 모양의 달 떠 있으리니²³⁾
 (下略)

이 작품은 長水縣監으로 가는 李希孟에게 주는 시다. 4구의 내용을 볼 때, 임지인 장수 부근에 이희맹의 고향이 있었던 듯하다. 시인은 서두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언급하는 한편, 수령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자상한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백성들을 자상하게 보살피는 것 [仁]은 말라붙은 것도 소생시키고, 부모님에 대한 정성[孝]은 완악한 무리도 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관이 백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방관 자신의 修養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관리에게 요구되는 이 같은 像은 嶺南 士林의 선두 주자로 당시 新進士類에 영향력이 컸던 金宗直에게 준 작품에서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難治稱後濟 다스리기 어려운 곳 후백제 땅이라 했었거니
 流俗自甄萱 전해오는 풍속은甄萱에서 시작되었지
 地廣農桑務 땅 넓어 농사일에 힘쓰고
 人稠獄訟繁 백성들 많아 訟事가 빈번하네
 邊郡頻報變 변방 고을에서는 자주 변고를 알리고
 漕卒輒申冤 漕卒들은 걸핏하면 원망을 말하네
 借問君何以 묻노니 그대 무엇으로 할 것인가
 自言方寸存 方寸의 마음 보존하리라 스스로 말하네²⁴⁾

지방관으로 떠나는 이에게 주는 시에는 해당 지역의 景勝과 관련된

23)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 143. 「장수현감 이희맹에게 주다 贈長水縣監李希孟」
 24)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46. 「오언율시 십 수. 호남에 관찰사로 가는 사상 김계운을 받들어 전송하다 五言律十首. 奉送金使相季暉按湖南」 제목을 보면 이 작품은 총 10수인데, 문집에 남아있는 것은 모두 여섯 수다. 본고에서 인용한 작품은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이다.

표현이 자주 보인다. 그런데 간혹 지역적인 특성을 거론하며 牧民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것들이 있다. 이 작품은 김종직이 全羅道觀察使로 부임하던 1487년(성종18)에 준 송별시로, 後百濟의 전통이 남아있는 지역 특성과 통치의 방도에 관해 말한 것이다. 특히 問答의 형식을 취한 마지막 두 구는 두 사람이 공감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해법의 제시가 현실과 거리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訟事가 빈번하고 漕卒들이 걸핏하면 원망을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의 길은 오히려 지방관 자신이 ‘方寸의 마음을 보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방촌의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 곧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것임을 다음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斯民卽三代	이 백성들은 바로 三代의 백성들이니
吹萬同此心	가없는 은택 입음은 이 마음과 같네
誘掖頽堪進	이끌고 도와 퇴락한 이들 나아가게 할 만하고
挽回古可今	만회하여 지금을 옛날처럼 만들 수 있으리
詩書須勸勉	모름지기 詩書を 부지런히 하고
姦惡要防禁	奸惡한 이들 막아야 하나니
矯世如行水	世俗을 바로잡음 물 흐르듯 하여
東西導所任	어느 곳이든 맡은 대로 인도하기를 ²⁵⁾

이 작품에 나타나는 목민관의 像은 단지 백성들의 삶을 운택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퇴락한 이들도 이끌고 도와 나아가게 하고 지금의 시대를 三代처럼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목민관의 위치에서 ‘방촌의 보존’이라는 자기 수양이 前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양이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의 차원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聖賢이 남긴 글을 학습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바로 “詩書を 부지런히 하고 奸惡한 이들

25)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46. 「오언율시 십 수. 호남에 관찰사로 가는 사상 김계은을 받들어 전송하다 五言律 十首. 奉送金使相季暉按湖南」

을 막아야한다”는 내용이 이것이다. 여기에서 지방관은 백성들의 교육의 담당자로서 중요한 사명을 띠게 되는데, 부임하는 고을마다 교육에 힘을 쏟았던 김종직의 활동²⁶⁾을 떠올리게 한다.

언급된 내용은 다분히 김종직의 활동을 의식하는 말이며, 시인 스스로 성세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홍귀달은 지방의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²⁷⁾ 자신이 성장하며 수학했던 경험²⁸⁾을 떠올리며, 수양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教化에 책임을 다하는 地方官의 像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관을 修養의 主體이자 教化의 擔當者로 강조하는 내용이 김종직 관련 작품에 주로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듯하다. 말하자면 김종직 및 신진사류와 비교할 때, 홍귀달의 교유시에는 이 같은 면모가 그리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속성의 관인형은 당시 신진사류의 진출과 함께 변화된 분위기를 보이던 관인사회에서 공감의 폭을 넓혀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6) 김종직은 40세 이던 1470년(성종1) 咸陽郡守로 재직할 때 鄭汝昌, 金宏弼 등을, 46세 때인 1476년(성종7)에는 善山府使로 있으면서 金宏弼, 李承彦, 元槩 등을 가르쳤다.

27) 年譜에 따르면, 그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했는데 신발과 벼선이 쉬이 헤어 어머니께 걱정을 끼칠까봐 더운 철이면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어머니가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한편 그는 자신이 지방의 한미한 집안 출신임을 의식했던 듯한데, 1503년 유배 길에 오를 때에 “내가 함창의 田父로서 조정에서 벼슬하였으니 성공도 나로 인함이요, 네 조정을 차례로 섬기다가 차마 편안히 물러나지 못하였으니 실패 또한 나로 인해서이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한스러워하라. 我以咸昌田夫, 致位廊廟, 成亦自我. 歷事四朝, 不忍便退, 敗亦自我, 誰怨誰恨.”라 말하기도 했다.

28) 年譜에 따르면 7세 때 고을 남쪽 栗里에 사는 戚從叔 南坡居士 金溫嶠에게 찾아가 배웠는데, 공부하러 갈 때에 도끼를 들고 가서 산 속에 감춰 두었다가 돌아 올 때에 관술을 패 가지고 와 불을 밝히고 늦은 밤까지 독서하였다고 한다. 9세 때에는 龍宮의 교수로 있던 朱伯孫에게 『논어』를 배우기도 했다.

3. 太平烟月 속의 餘裕와 自適의 閑人

홍귀달의 시는 末年 유배기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심각하게 개인적인 煩悶이나 憂患意識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지 않다. 대신 公務의 餘暇 또는 한가한 日常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양적으로 많은데, 대부분 교유시인 이 작품들에는 공통으로 등장하는 詩語가 있다. 이 같은 시어들은 이 시대의 특성이라 할 독특한 意境을 창출하고 있다.

南山蒼翠壓吾廬	남산의 푸르름 우리 집을 누르고
新作茅亭俯市閭	새로 지은茅亭은 저자 거리 굽어보네
勝友正逢蘭臭舊	멋진 친구 만나니 옛 난초 향기인 듯
佳辰又屬菊花初	좋은 계절이 오니 국화 피기 시작하네
人生擾擾聚還散	인생살이 소란스레 모였다 흩어졌다
世事紛紛毀復譽	세상사 어지러이 비난했다 칭찬했다
後夜更須相對飲	뒷날 밤에 마주하여 한 잔 해야 하거니
青天有月不孤余	푸른 하늘에 달 뜰 때, 날 버려두지 마시길 ²⁹⁾

年譜에 따르면 시인은 1479년(성종10) 지금의 서울 南山 아래 靑鶴洞 지역에 虛白亭이라는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 이 일대는 屏岩이 있고 넓고 판판한 큰 돌[盤石]이 있었는데, 그윽하고 고요하여 좋아할 만하였다³⁰⁾고 한다. 이 작품의 2구에 나오는 茅亭이 바로 허백정이다.

시인은 이곳에서 當代의 名士들과 교유하며 시를 酬唱했는데, 이 작품도 같은 배경 하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시인은 전날 밤 정승조와 함께 술을 마시다 헤어진 뒤, 아침 무렵 전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시를 보낸다. 둘의 만남은 菊花가 피기 시작한 어느 가을밤에

29) 洪貴達, 『虛白亭集』, 권1, p.27. 「鄭 河南公과 함께 밤에 茅亭에서 술을 마시다 조금 취하여 헤어졌다. 아침에 혼자 앉아 있다가 느낌이 있어 시를 지어 河南公에게 부쳤다. 與鄭河南公, 夜飲茅亭, 少醉而散. 朝來獨坐有感, 詩以寄河南公.」

30) 『해동잡록』 5, 「本朝·李荇」. 참조.

있었는데, 都城 안의 삶에서 느끼는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사를 잊고 또 거리를 둘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공무의 여가에 즐기는 한적한 생활과 그러한 상황과 관련된 詩作은 이 시대만의 특성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유롭고 한가로운 삶이 자신의 시대가 태평성세라는 인식과 軌를 같이 하고 있음은 다음 두 작품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清明佳節過紛紛	청명한 가절 분분히 지나가는데
何事思君不見君	무슨 일로 그대 생각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나
靑鶴洞君應待子	청학동군은 그대 기다리며
已頒花鳥亂如雲	꽃이며 새들, 구름처럼 어지러이 늘어놓았다네 ³¹⁾

千門桃李欲紛紛	문마다 복숭아꽃 오얏꽃 무성히 피려하는데
咫尺思君不見君	지척에서 그대 그리워하나 만나지 못하네
朝隱孤高靑鶴洞	朝隱은 청학동에서 고고히 지내고
厓仙應醉臥長雲	厓仙은 아득한 구름 위에 취해 누웠으리 ³²⁾

앞의 작품은 시인이 다른 곳에 있는 벗에게 오기를 바라는 내용의 시³³⁾이고, 아래 작품은 그것에 대해 상대가 차운하여 보내온 시다. 차운시를 지은 이는 성균관박사를 거쳐 감찰·승문원교리 등을 역임했던 丁壽崑(1452~1486)이다.

이 작품은 초청의 의사와 그에 대한 답신으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표현상의 특징이다. 내용을 보면, 시인은 먼저 봄기운이 완연한 청학동 일대를 바라본다. 그곳에는 꽃도 피고 새도 울고 있다. 華麗한 경관 속에 있던 시인은 문득 상대를 떠올리며, 장난스럽게 상황을 꾸민다. 자신은 그곳의 주인이며 봄날 가득한 物象들은 바로 자신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늘어놓은 것이라는 것이다. 초

31)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27. 「不騫 丁壽崑에게 부치다. 寄丁不騫壽崑」

32) 정수근, 『虛白亭集』, 속집 권1, p.127. 「차운 次韻」

33) 이 작품 제목 아래의 注에 “이 때에 불건이 다른 곳에서 있었기에 시를 지어 돌아오기를 바란 것이다. 時不騫寓於他, 故詩以邀還.”라는 내용이 있다.

청을 뜻하는 글자를 쓰지 않고도 초청의 의사를 정중하게 밝히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정수곤의 차운시도 그러한 표현 맥락을 이어간다. 먼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한동안 보지 못한 것을 서술하고는, 시를 보낸 이에 대한 答禮의 말을 늘어놓는다. 시를 보낸 홍귀달이 醉興을 즐기며 神仙이나 다름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³⁴⁾ 태평한 시대를 사는 관인들의 여유와 한가함의 바탕 위에서 쓰인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의 작품 말미에 보이는 ‘神仙’은 이 시대 官人의 形象을 포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賓主西湖路	손과 주인으로 만난 西湖의 길
清霜九月天	맑은 서리 내리는 구월의 하늘
馬行紅樹外	말은 붉은 숲 밖으로 떠나고
鴈落白雲邊	기러기는 흰 구름 가로 떨어지네
唱和詩皆好	주고받은 시는 모두 좋았고
商論事盡便	논의하는 일들 모두 편했지
歌謠應滿地	노래가 웅당 온 땅에 가득하거니
不害醉神仙	신선이 취하는 게 해될 게 있으랴 ³⁵⁾

제목을 볼 때, 이 작품은 조위가 忠淸監司로 있던 1494년(성종25) 무렵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시인은 충청도 지역에서 曹偉, 金駟孫과 만남을 가진 뒤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시를 쓴 것 같다.³⁶⁾ 이들은

- 34)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38. 「次柳希明洵韻」 등에 시인이 ‘洪厓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厓仙’도 홍귀달을 가리킨 말로 보인다. ‘朝隱’은 비록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으나 담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은거함과 다름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홍귀달과 정수곤이 서로 아는 다른 인물을 뜻하거나 厓仙과 함께 홍귀달을 지칭한 말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어느 쪽으로 보든 내용상의 흐름에는 별 차이가 없다.
- 35)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22. 「陰城에서 監司 曹偉, 都事 金駟孫에게 만들어 부치다. 陰城, 奉寄曹使相偉·金都事駟孫。」二首
- 36) 같은 작품의 두 번째 수에 “滿眼秋容色, 蕭騷馬上人. 如何飄白髮, 却此走紅塵. 嶺路遮歸騎, 村墟駐病身. 明朝又北去, 世事更紛綸.”라는 내용이 있다.

술잔이 오고가는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수창했던 듯하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방관을 맡고 있던 조위나 경성으로 돌아가는 시인이 공감하는 시대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그들이 사는 시대는 聖代를 칭송하는 노래가 나라 안에 가득하므로, 神仙이나 다름없는 聖代의 官吏들이 醉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기실 신선이라는 표현은 상대를 미화하는 데에 자주 쓰이는 것으로 특히 교유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관리를 신선에 비유하고, 또 궁궐을 仙界에 비유하는 것은 한시 창작상의 오랜 관습이다. 그런데 강조할 점은 이 무렵의 교유시에 이 시어가 부쩍 자주 쓰인다는 것이다.³⁷⁾ 그만큼 당시의 官人들이 상대를 신선으로 美化할 여유가 있었고, 또 그러한 언급을 하게 할 만한 餘裕로운 交遊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시대 관인의 形象을 이해하는 데에 신선이라는 시어 보다 深層的인 맥락에 위치하는 것으로, ‘無事’, ‘無事酒’ 등을 들 수 있다. 無事는 시의 문맥상 태평한 세상에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거나, 할 일이 없을 정도로 태평한 세상을 뜻할 때 쓰이며, 無事酒는 그러한 세상에서 마시는 술이다. 대표적인 예로, “해 보내는 세월 속에 몸엔 아무 일 없고 [無事], 시 속의 하늘과 땅 흥이 절로 나리”³⁸⁾라는 내용이나, “간원이 오 히려 다시 간할 일이 없으니[無事], 醉鄉에서 한적한 사람 되는 데에 해가 되지 않으리”³⁹⁾ “한 잔의 無事酒에, 두 편의 흥겨움에 지은 시”⁴⁰⁾라

37) 예를 들면,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2, pp.159-160. 「二月晦日, 與侍講院諸公遊青鶴洞」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는데, 청학동에 노닐면서 시강원의 관원들을 신선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다. “青鶴昔飛去, 清虛留洞天. 蒼松爲四障, 白日戲群仙. 酒卓因巖石, 詩瓢泛澗泉. 醉歸應失路, 雲氣暗山前. (後略)”

38)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1, p.146. 「排律一篇. 送權太僕宣慰日本使」 “醉中日月身無事, 詩裏乾坤興有神.”

39)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2, p.155. 「諫院契軸」 “諫員還復諫無事, 未害醉鄉悠悠人.”

40) 洪貴達, 『虛白亭集』, 속집 권3, p.175. 「閩院開罇, 星州京邸, 邀兵曹參判柳瞻講好, 余與右副孫公直宿本院. 翌日, 右承旨追寫宿夕之事, 贈寄柳公, 余用其

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시인이 활동하던 성종 연간은 官人의 삶과 의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만한 문제가 거의 없었던 시기였다. 교유시에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관인의 形象은 여유롭고 自適한 생활을 즐기는 閑人의 모습이며, 神仙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IV. 맺음말

이상을 통해 洪貴達(1438~1504)의 교유시에 나타난 官人의 形象을 살피고, 이를 통해 15世紀 後半 시인들의 時代 認識과 志向의 일면을 살피고자 했다. 논의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홍귀달은 世祖 朝에 嶺南에서 진출한 士人으로, 함께 영남에 기반을 둔 金宗直 및 新進士類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그는 김종직과 달리 출사 이후 순조롭게 입지를 확보해나갔으며, 徐居正이 맡고 있던 文衡을 이어받기도 했다. 신진사류와도 교유했지만 보다 이른 시기에 진출하여 京華社會에 적응과정을 거쳤던 선배 세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勳舊 對 士林으로 인식되어온 기존의 構圖에서 그는 개성적인 연구 대상으로 보이기 어려웠던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특성은 오히려 다른 면을 주목하게 한다. 1504년 죽음 이전까지 그는 순탄한 관직 생활을 하며 폭넓은 교유를 나누었고, 文衡을 맡을 정도로 당시 문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점에서 생애의 오랜 기간 동안 교유를 바탕으로 한 교유시는 그의 시대 인식과 지향만이 아니라, 당대 교유의 중심에 있었던 그를 통해 다른 시대와 차별화되는 이 시대만의 특성을 전망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제재가 바로 교유시에

韻, 吟詩兩篇又寄云。」“一杯無事酒, 兩句引興詩。”

나타난 관인의 형상이다.

홍귀달의 교유시에 나타난 15世紀 後半 官人의 形象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治世의 根幹으로서의 循吏型 官人이다. 그는 당대가 태평성세라는 인식 아래, 태평성세의 지속을 위해서는 백성의 삶의 문제에 절실하고 任地의 難題를 적절히 헤쳐 나가는 循吏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대에 필요한 관인형의 하나로 循吏型 관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修養의 主體, 教化의 담당자로서의 관인의 形象이다. 이 무렵에는 신진사류가 중앙 정계 진출하면서 정국에 새로운 긴장감이 형성되었고, 『小學』, 『家禮』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律身, 自己 檢束 등의 실천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는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성장하며 수학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수양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教化에 책임을 다하는 地方 官의 像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관을 수양의 주체이자 교화의 담당자로 강조하는 내용이 김종직 관련 작품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듯하다. 말하자면 김종직 및 신진사류와 비교할 때, 홍귀달의 교유시에는 이 같은 면모가 그리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속성의 관인형은 당시 신진사류의 진출과 함께 변화를 겪어가던 관인사회에서 공감의 폭을 넓혀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太平烟月 속에 餘裕와 自適을 즐기는 閑人의 形象이다. 그가 주로 활동하던 성종 연간은 대체로 안정과 평온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교유를 바탕에 둔 많은 작품에도 이러한 안정된 시대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관인의 形象은 여유롭고 自適한 생활을 즐기는 閑人으로 나타나며, 神仙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관인의 형상은 각각 당대 시인들이 느끼는 정치 현실의 필요, 새롭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官人像에 대한 고민, 시대를 謳歌하는 餘裕와 自適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순리형의 관인은 민생의 안정을 바탕으로 태평성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필요와 맞닿고 있으며, 수양의 주체이자 교화의 담당자로서의 관인

형상은 당대 정국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던 김종직 및 新進士類의 학문 성향의 점차적인 확산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태평세월속의 閑人이라는 관인 형상은 한가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관인으로서 태평한 시대를 구가하는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洪貴達, 『虛白亭集』, 『韓國文集叢刊』 14, 민족문화추진회, 1988.
金駟孫, 『濯纓集』, 『韓國文集叢刊』 17, 민족문화추진회, 1988.
金宗直, 『佔畢齋集』, 『韓國文集叢刊』 12, 민족문화추진회, 1988.
徐居正, 『四佳集』, 『韓國文集叢刊』 10~11, 민족문화추진회, 1988.
楊熙止, 『大峯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15, 민족문화추진회, 1988.
曹偉, 『梅溪集』, 『韓國文集叢刊』 16, 민족문화추진회, 1988.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 강지희, 「洪貴達 詩에 나타난 儒仙의 삶과 虛白에의 지향」, 『漢文學報』 11집, 우리한문학회, 2004.
권현준, 「허백정 홍귀달의 기문 연구」, 경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 돈, 『朝鮮前期 君臣權力關係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김창호, 『曹偉 詩를 통해 본 15世紀 後半 文學 地形의 一面』, 동양한문학연구 26집, 2008.
심경호, 『朝鮮時代 漢文學과 詩經論』, 1999.
이동재, 『梅溪 曹偉의 삶과 문학』, 보고사, 1993.
이병휴, 『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一潮閣, 1999.
정경주,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법인문화사, 1993.
최선희, 『조선 전기 지방사족과 국가』, 경인문화사, 2007.
황위주, 「金宗直의 現實認識과 東都樂府」, 「점필재 김종직의 문학세계」 발표 논문, 밀양문화원, 2005.

Abstract

*The Images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Late 15th Century Observed in Hong Gwi-dal's Poems Written in Social Association / Kim Chang Ho**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images of government officials observed in poems written in social association by Hong Gwi-dal(洪貴達) who was active during the period from King Seongjong(成宗) to King Yeonsan(燕山君) in the Chosun Dynasty. This study is partly for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Hong Gwi-dal's poems and at the same time for inquiring into what were perceived and pursued by poets in the late 15th century.

Hong Gwi-dal held posts in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in local governments, played roles in diplomacy toward foreign countries, and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historical records and various classical books. Although he faced tragic death under King Yeonsan's regime, he had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and associated with prominent figures in his days. In particular, his poems written in social association represent his social activities clearly.

The images of government officials observed in his poem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overnor-style officials who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government. Second, there were educator-style officials who promoted the cultivation of mind and edification. Third, there were libertine-style officials who led a leisurely and self-contented life in the peaceful time.

These images show the life and consciousness of government officials who established stable society in the early Chosun Dynasty, and they were the

* Research professo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nihult@hanmail.net

images of government officials required to maintain the stable society.

【Key words】 The Images of Government Officials, stable society, governor-style officials, educator-style officials, libertine-style officials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5월 20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